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10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82.5원 (+11.9원)

KOSPI

5,778.01 (-94.33, -1.61%)

KOSDAQ

1,076.00 (-13.85, -1.27%)

국고채 10년 금리

3.660 (+0.03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원자재 레시피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 [전규연]

기업분석

LG유플러스	1Q 프리뷰 – 3사 중 유일하게 실적 우수할 전망 [김홍식]

산업분석

운송	3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1분기 좋다, 하지만… [안도현]

Monthly & Weekly

통신서비스	5G SA를 준비하는 자세 견지해야 [김홍식]
유틸리티	노란불이 켜졌다 [유재선]
건설	4월: 이란 그 이후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호라이즌 로보틱스	연초 이후 주가 약세 이유와 2026년 전망 [백승혜]
미국 건설	주택 개발 예산안 삭감과 건설비용 증가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증권, 한미약품, 엔씨소프트, CJ제일제당, 리노공업,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2026년 4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원자재 레시피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

Commod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원유 수급 상황, 공급 차질 물량은 약 10% 수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WTI가 배럴당 $90대로 하락했다. 휴전 이후에도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 남짓에 불과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은 유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물량은 글로벌 수요의 약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으며, 파이프라인이 100% 가동될 때 얀부에서 수출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은 일일 500만 배럴이다. 현재 사우디의 원유 수출 물량은 일일 470만 배럴에 근접해 전쟁 이전 물량의 약 70%가 공급되고 있다. UAE는 드론 공습으로 원유 선적에 차질을 빚었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이 재개되면서 3월 말 원유 선적량이 일일 190만 배럴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IEA의 전략비축유 4억 배럴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방출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방출 속도가 일일 200만 배럴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기한 연장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한시적으로 제재가 완화된 러시아(~4/11)와 이란(~4/19)산 해상 원유 물량도 있다.

유가 안정을 결정하는 변수는 상승 폭이 아닌 공급 정상화 여부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유가가 어디까지 안정될 수 있고, 안정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최대 78% 상승했는데(WTI 기준), 유가의 되돌림은 상승 폭보다 공급 정상화 여부가 중요하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OPEC의 금수조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지속 등으로 고유가가 장기간 이어졌다. 반면 1990년 걸프전과 2011년 리비아 내전,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에는 각각 전쟁 조기 종전, 사우디 증산 대응, 전략비축유 방출 및 수요 감소 등으로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서 유가가 약 1~4개월 내에 안정됐다. 이번에도 종전 이후 공급이 원상복구되는 시간에 따라 유가 하락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안정되는 시점은 금년 4분기 경으로 예상

이번 전쟁 이후 원유 공급 정상화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 2)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재개, 3) 미국 등 비OPEC 국가들의 증산 속도가 중요하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경우 통행료 등으로 거래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완전한 해상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선박들의 통항 회피 심리도 이어질 수 있다.

2)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자유로워지더라도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은 하반기 경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OPEC 3월 원유 생산량은 2월의 74% 수준으로 줄었고, 원유 저장시설

부족으로 4월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가동이 축소된 유전은 금방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중단 후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유전은 2~3주, 대형 유전은 4~5주 정도가 소요된다.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피해 영향도 상존한다.

3) 한동안 공급 차질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OPEC 국가들의 증산이 이를 일부 상쇄해줄 것이다. 미국 세일기업들은 전쟁 이후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어 원유 생산을 점차 늘릴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가이아나 등 비OPEC 국가들의 증산 기조도 이어질 것이다.

물론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면 유가에 반영된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며 유가가 서서히 하락하겠지만, 당분간 이어질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 전쟁 이전보다 높은 배럴당 $80~$90 (WTI 기준) 수준의 유가는 지속될 수 있다. OECD 석유 재고는 금년 3분기까지 줄어든 후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안정되는 시점은 금년 4분기 경으로 예상한다.

2026년 04월 10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1Q 프리뷰 – 3사 중 유일하게 실적 우수할 전망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4.09)	16,1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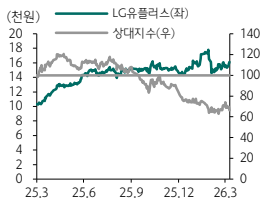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778.01
52주 최고/최저(원)	17,810/10,310
시가총액(십억원)	6,958.9
시가총액비중(%)	0.14
발행주식수(천주)	429,82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65.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1
외국인지분율(%)	41.75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7.3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716.6	16,038.8
영업이익(십억원)	1,131.6	1,212.3
순이익(십억원)	724.1	787.2
EPS(원)	1,719	1,860
BPS(원)	21,774	22,86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625.2	15,451.7	15,698.6	16,225.5
영업이익	863.1	892.1	1,108.5	1,174.2
세전이익	450.6	680.5	901.8	988.0
순이익	374.5	523.9	796.4	872.5
EPS	858	1,208	1,853	2,030
증감율	(39.83)	40.79	53.39	9.55
PER	12.04	12.19	8.70	7.95
PBR	0.52	0.71	0.74	0.70
EV/EBITDA	3.09	3.52	2.73	2.32
ROE	4.40	6.01	8.74	9.04
BPS	19,825	20,770	21,689	23,028
DPS	650	660	700	7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투자의견/TP 20,000원 유지, 이익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시기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이동전화 및 IDC 매출액 증가, 인건비 감소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고, 2) 지난해 일회성비용이 많았던 탓에 2026년도엔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며, 3) 2분기 900~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발표될 것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4) 장기 DPS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 주가 수준에선 기대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4~5월엔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 밸류업 증대가 이슈화 될 수 있는 시기라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Q 연결 영업이익 2,791억원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할 전망

LGU+는 5/7일(목)에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791억원(+9% YoY, +64% QoQ)로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2,815억원)에 대체로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1분기 통신 3사간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용은 전년동기비 증가가 예상되나 인건비가 QoQ 뿐만 아니라 YoY로도 감소하는 가운데 이동전화매출액과 IDC 매출액이 전년동기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경쟁사 해킹 여파에 따른 반사 이익이 이번 분기에도 두드러질 것이란 판단이다. SKT 영업정지 이후 이동전화매출액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영향과 2025년 1분기 CES 등 각종 행사 비용이 많았던 탓이 더불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첫번째 분기 실적이 우수할 전망이고 탑라인 뿐만 아니라 영업비용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면모를 나타낼 전망이라 2026년 연간 두자리 수 연결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장/단기 실적, 배당 증가 기대감 높아질 시기, 저점 매수 지속 추천

1분기 어닝 시즌인 4~5월엔 단기 LGU+ 주가 강세가 예상된다. 1분기 실적이 내용상 양호할 전망이라 2026년 높은 이익 성장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팽창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에 따른 DPS 성장 기대감 역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6년 2분기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할 공산이 큰데 900억원~1,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 회복이 예상된다. 글로벌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2026년 추정 DPS가 7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대배당수익률 3.5% 수준인 2만원까지는 올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4월 10일 | 산업분석

운송

3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1분기 좋다, 하지만…

Neutral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9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32,000원 | CP 24,250원

진에어(272450)
BUY | TP 8,500원 | CP 6,490원

3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654만명(+9% (YoY))

2026년 3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654만명을 기록했다. 환승객이 30% (YoY) 증가한 85만명(환승 여객 비중 13.1%)을 기록하며 전쟁 이후 인천공항이 유럽의 환승 허브로도 사용되는 모습이다.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여객 수송량은 +9%/+30%/-1%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노선은 11%/22% 증가했다. 1분기 인천공항 여객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11%/-1% (YoY) 변동했고,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은 +20%/-6%/-5% 변동했다.

3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6.0만톤(-0% (YoY))

3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0% (YoY) 감소한 26.0만톤을 기록했다. 주요 루트인 중국/동남아/미주/유럽 지역 수송량이 -6%/+2%/-1%/+8% (YoY) 변동했다. 1분기 화물수송량은 2% (YoY)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0% (YoY)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은 76% 감소했다.

3분기까지는 항공사 실적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중동 분쟁으로 기존 두바이 공항이 수행하던 아시아-유럽 간의 환승 허브 역할이 아시아권으로 옮겨지고 있고, 따라서 3월 인천공항 유럽 노선 여객량이 22% (YoY) 증가했다. 유럽권 항공화물 중량도 3월 8% (YoY) 증가하며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이다. 1분기까지는 항공유 가격 상승이 실적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는 대한항공 및 주요 LCC의 호실적을 전망한다. 2분기에는 기 판매된 항공권(유류할증료 미반영)과 증가한 유류비 사이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질 예정이다. 이 손실을 항공사가 다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된다고 가정해도 항공유 가격이 안정화 되는 시점은 통항 재개 수개월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항공사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가는 전쟁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주 실적 우려를 많이 반영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회복 기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5G SA를 준비하는 자세 견지해야

통신서비스 Weekly | 2026.4.10

Analyst 김홍식 proll@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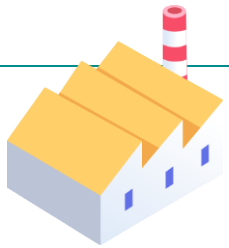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국내에서 5G SA 상용화 및 6G 도입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FCC가 2026년 6월 5G 신규 주파수 경매를 예고하고 AT&T가 향후 5년간 3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CAPEX 집행 계획을 밝힌 반면 국내의 경우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말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이 발표되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 3사 역시 보수적인 투자 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적지 않다. 최근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가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릭슨/노키아 등 글로벌 SI는 물론이고 글로벌 IT/플랫폼 업체들까지 나서 통신사들이 5G SA/6G로 진화하고 AI RAN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네트워크 발전 없이는 IT/플랫폼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2007년과 2018년에 네트워크 고도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IT/플랫폼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3.5G/4G로 연결되는 투자, 5G 투자로 이어지면서 해결되었다. 이번에도 5G/6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IT/플랫폼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 결국 AI가 실패하고 피지컬 AI를 밀기 시작하면서 5G/6G로의 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G SA는 NSA와 달리 LTE 기반의 코어망을 쓰지 않고 접속망과 코어망을 모두 5G 기반으로 구축함에 따라 5G의 주요 특징인 초저지연을 극대화할 수 있는 IoT에 최적화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AI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면서 지연 속도를 줄여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5G SA 도입을 통한 통신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AI 기반의 6G 통신으로 진화하기 위해 5G SA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6G는 SA 방식이어서 LTE와 연동하지 않는데 아직은 5G 커버리지가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SA 전환 후 CAPEX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데 아마도 2026년 연말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은 국내 신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도 결국 5G 신규 주파수 공급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대로 5G SA 도입에 따른 통신장비 주가 상승이 일부 통신서비스 업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5G SA 도입 기대감으로 배당수익률 밴드가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SKT 위주로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 최근 통신장비 업종 상승을 5G SA에서 6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빅사이클이 아닌 데이터센터 투자 호황기를 맞이한 광통신장비 업체들의 일시적 상승으로 이해하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영향이 큰 것 같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미 시작된 이번 5G SA~6G 통신장비 사이클은 20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9년까지 민간/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지컬 AI에 대다수 국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2000년도 전후의 인터넷 혁명이 향후 20년 패권을 좌우했던 것처럼 2030년 전후의 피지컬 AI 혁명에서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2050년까지 산업 패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권 경쟁의 중심에 통신장비 산업이 집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통신서비스 업종 역시 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5G 기지국/인빌딩 및 코어망 장비 위주로 집중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KMW/RFHIC/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오이솔루션/우리넷이 대표 수혜주이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선 SKT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KMW/RFHIC/쏠리드/이노와이어/오이솔루션/우리넷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한다.

노란불이 켜졌다



유틸리티 Weekly | 2026.04.1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3.3% 하회했다. 8일 종가 기준 WTI는 96.2달러/배럴(WoW -5.6%), 미국 천연가스는 2.7달러/mmbtu(-3.2%), 아시아 LNG 현물은 19.0달러/mmbtu(-4.2%), 호주산 유연탄은 135.5달러/톤(-1.2%), 원/달러 환율은 1,478.6원(-2.3%)을 기록했다. 2주 동안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 이후 유가와 석탄 가격은 하락한 반면 JKM은 아직 제자리다.
- 에너지 원자재 수급난 영향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2주의 여유가 주어졌다. 원유 운송기간 및 우선순위에 따른 병목 현상 등을 감안하면 당장은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다. 중장기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휴전 협상 소식 이후 WTI와 브렌트는 배럴당 95달러 내외 가격을 형성 중이다. 고점 대비 상당 부분 완화된 수치지만 3월 초 개전 직후 레벨보다는 여전히 높다.
- 환율, 유가 등 전력시장 주요 원가 지표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전력은 2026년 4분기부터 적자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 정상화에 필요한 물리적 과정을 거친 후 원가 부담이 전쟁 이전만큼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 비용 하락에 대한 방향성만 확보된다면 단기 원가 노이즈는 무시하고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가 가능하다. 미국과 이란 상호간 요구 사항에 이견이 발생할 많지만 4월 10일부터 시작될 협상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전KPS가 고리 원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쟁상대인 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대비 14억원 낮은 218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고리 원전 1,2호기에서 교체된 원자로 헤드 2대, 증기발생기 2기 등을 절단, 감용, 포장하는 공정으로 오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미 고리 1호기 해체 사전 단계인 계통제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해체 공사 입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 고리 2호기가 4월 4일 가동을 재개했다.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일 정지 후 계속운전 허가를 획득하여 약 3년만에 재가동된 원전이다. 2022년 이후 계속운전 신청이 이뤄진 원전 중 첫 재가동 사례이며 현재 수명 만료로 정지된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수소 입찰시장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청정수소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인 일반수소는 특정 시점에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고시에는 2028년 입찰 물량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사업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탄소중립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부분을 감안하면 조기 종료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존속/폐지 여부는 상반기 중에 이뤄질 고시의 유무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 SK가스가 울산GPS 지분 49%를 매각했다. 매각 대상은 스틱한투인프라 사모투자합자회사이며 매각 대금은 1.2조원 수준이다. 발전사업의 가치가 2.45조원으로 평가된 점에서 유통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매각으로 기존 투자비를 상당 부분 조기 회수한 동시에 미래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이다. 배당의 경우 연결 지배순이익이 상당 수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DPS 유지를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기존 추세 대비 상향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9일 종가 기준 17,400원으로 전주대비 8.1% 상승, YTD 67.3%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유가 하락보다 유연탄 가격 하락폭이 낮지만 판가-원가 스프레드 관점에서 아직 긍정적 구간 유지
- SK가스(Top Pick): 전쟁 상황이 급변했으나 상호간의 요구 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음. 미국산 LPG 조달의 장점 여전히 유효
- 한국전력: 유가 급락으로 주가 반등. 환율과 유가 레벨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점까지 완만한 회복 가능하나 경계 필요

4월: 이란 그 이후

건설 Monthly | 2026.4.1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투자의견	Overweight	Top pick	삼성E&A, GS건설, 아이에스동서

매수

- 건설업종 Overweight, TOP PICK으로 삼성E&A, GS건설, 아이에스동서를 제시한다. 투자포인트는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다. 이란과 미국간 2주 동안의 휴전과 더불어 정상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실제 중동에서 타격으로 인해 크게 파괴된 O&G 다운스트림 플랜트들이 있으며, 재가동을 위한 발주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건 발주의 경우, 비용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빠르게 정상화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비가 저렴한 중국 등의 EPC사들보다는, 손상 입은 해당 프로젝트를 지었던 EPC사를 우선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수행했던 EPC사들이 설계, 자재 스펙, 공사 방식 등 이해도가 높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바레인 밥코, 쿠웨이트 MAA/MAB, UAE 루와이스 등 파괴된 현장들을 2014년~2019년에 한국EPC사들이 많이 지었다. 관련한 건설사로 삼성E&A, GS건설, 대우건설이 있다. 이란 재건의 경우 사전에 경제 제재 등 풀어야 할 것 숙제가 많지만, 풍부한 가스전과 유전, 그리고 파괴된 발전소를 생각했을 때 수주 기회가 크다. 그 중 DL이앤씨는 전쟁 전까지도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주택은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따라 수급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60달러의 유가 수준으로 회복은 1년 내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다소 건축원가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우크라이나 때만큼의 마진 축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전월세 가격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매매로의 가격 상승이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택주에 대한 장기 투자포인트는 유효하다. 시멘트는 유가의 상승 및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라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가격에 전가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인테리어는 기성물량의 감소가 이어지며 B2B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매거래량 회복에 따른 B2C 실적의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 건설 대형주들의 1분기 실적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진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중동 현장은 멈춘 현장은 거의 없고, 자재는 우회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은 사업주와 협의 중이다. 국내 건축 자재도 아직까지 수급적인 영향은 없으며, 장기화될 경우 일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원가 조정 현실화 계획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1~2% 수준으로 보인다.
- 국내 주택 분양 결과는 건설사별 분위기가 다르다. GS건설은 상반기 1만세대 분양 페이스다. 1분기에 4,400세대 분양했으며, 2분기에는 6,400세대 분양할 계획이다. 연간 가이던스는 14,300세대다. DL이앤씨는 1분기 1,943세대 착공하며, 연간 가이던스 9,300세대를 고려했을 때 순항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1분기 저조했다. 대우건설은 847세대 분양했으며, 현대건설은 착공이 없었다.
- 원전 관련해서는 1분기 특이사항은 없다. 2분기에 이벤트가 몰려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페르미 마타도르 FEED가 4월말에 종료되며, 2분기 내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할 예정이다. 미국 홀텍 SMR도 2분기 중으로 수주계약이 있을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체코원전 계약서를 2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규원전(2기) 입찰 준비를 위한 팀코리아 입찰이 2분기에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가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 주택 지표에서 회복 신호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여전히 착공 관련 지표는 부진하지만, 광역시에서의 미분양 감소가 의미가 있다. 특히 대구에서만 12월 1,256세대, 1월 530세대에 이어 2월 176세대가 감소했다. 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전국 상승했으며, 아파트 전세 실거래 지수도 전국 상승했다.

2026년 4월 9일 | Global Equity

호라이즌 로보틱스(9660.HK)

연초 이후 주가 약세 이유와 2026년 전망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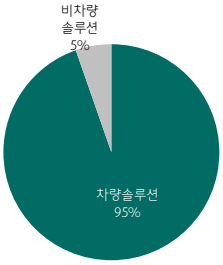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1.62 HKD
CP(4.9)	6.99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horizon.auto
시가총액(십억HKD)	102.7
시가총액(조원)	19.4
52주최고/최저(HKD)	11.32/4.8
주요주주 지분율(%)	
SAIC QIJUN I HLDG LTD	8.18
GIL TRUST LIMITED	7.1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3.7)	(30.0)	29.0
상대	(11.2)	(23.6)	4.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552	2,384	6,034	9,565
영업이익	(1,990)	(3,339)	(2,873)	(1,199)
순이익	(6,739)	2,347	(2,954)	(1,018)
EPS(CNY)	(0.8)	(0.8)	(0.2)	(0.1)
EPS(YoY, %)	0.0	0.0	(75.7)	(70.1)
ROE(%)	-	(85.3)	(26.0)	(10.4)
PER(배)	6.6	6.6	-	-
PBR(배)	1.3	7.7	8.2	8.3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올해 주가 부진은 ADAS 가격 하락 및 경쟁 심화 우려 때문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주가는 연초 이후 17% 조정 받으며 약세 흐름을 이어왔다. 2024년 4분기 홍콩 증시 상장 이후 지난해 연간 140%의 주가 랠리로 인해 최근 기술주 조정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그 외에도 1)중국 전기차 ADAS 제품 가격 하락, 2)로컬 자율주행 HW/SW 경쟁 심화와 관련된 우려들이 최근 주가에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2025년부터 저가 차종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무료 사양으로 제공됨에 따라 전기차 OEM들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었고, 이는 ADAS 제품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호라이즌의 제품 솔루션 부문 GPM은 보급형 ADAS 제품 가격 하락으로 2025년 상반기 45.6%에서 하반기 24.3%로 하락했다. 또한, 올해 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오픈 소스 전략 발표, 로컬 IT/완성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칩 개발 가속화 등이 호라이즌의 경쟁 우위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6년 주가 회복을 견인할 세 가지 기대 요인들

다만, 2026년 호라이즌은 가파른 외형성장과 수익성 회복을 통해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대부분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영진은 출하량 확대, 제품 Mix 개선 통한 ASP 상승 기대감을 근거로 향후 수년간의 연평균 매출 성장 목표치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했고, 2026년 Blended ASP는 100USD로 2025년 약 60USD 대비 60% 이상 상승을 전망했다. 향후 GPM은 60%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 보급형 제품 가격 하락 및 경쟁 이슈로 인한 수익성 훼손 우려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공표한 로봇 사업 자회사(지분 약 40%)인 D-Robotics의 연결 제외 및 관계사 전환으로 고마진의 라이선스 매출 기여, 비용 부담 축소 등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며,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 사업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이후 주요 주가 상승 촉매제로는 1)고마진의 호라이즌 슈퍼 드라이브(HSD) 대규모 양산 개시, 2)4월 중국 최초 자율주행-스마트콕핏 통합형 SoC 출시, 3)3분기 자체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개시 등이 될 전망이다. 2026년 호라이즌의 전체 출하량 목표치는 530~550만개(YoY +35%)로 그 중 고성능 ADAS 제품인 HSD 출하량은 40만개로 4Q25(2.2만개)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4월 출시 예정인 콕핏 통합형 SoC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콕핏 애플리케이션과 HSD 연산 워크로드를 단일 칩에서 동시에 구동함으로써 OEM의 시스템 비용 절감과 설계 단순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영진에 따르면 메모리 비용만 약 1천위안 절감 효과가 있어 콕핏-주행 통합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서 호라이즌의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택시 사업의 경우 로보택시 스타트업 및 OEM 파트너들과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 중이며, 자율주행 칩과 HSD 소프트웨어 제공을 통한 L4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 검증, 데이터 축적, 레퍼런스 확보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2026년 4월 10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건설

주택 개발 예산안 삭감과 건설비용 증가

건자재 관세가 야기한 주택 비용 증가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주택 시장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배경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부터 철강·구리·알루미늄 등 건자재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해 주택 건설 비용을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이미 심각했던 미국의 주택 공급 부족이 한층 더 심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구리 관세 시행 이후, 작년 2월~올해 2월 사이 구리 및 구리 제품 가격은 24.8%, 철강 및 제품은 20.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인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원가 부담이 일반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커지고 있다. 가전제품 역시 작년 6월 가전 관세 확대 이후 오븐은 평균 9%($70), 건조기와 세탁기는 각각 6% 가격이 올랐다. 보고서는 이러한 각종 건자재 관세를 종합하면 주택 한 채당 건설 비용 초기 $10,900, 향후 $17,0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원한 주택 지표 회복

주택 지표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건축 허가건수는 2025년 내내 2024년 평균치를 하회했으며, 특히 25년 8월에는 팬데믹 기간인 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착공 역시 25년 12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0만호 이상 줄었으며, 건축업자 신뢰지수(NAHB/HMI)는 작년 내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에서도 주거용 건설 일자리가 24년 12월 대비 약 6만개 이상 감소하며, 지난 2월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민 단속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건설 현장 인력 이탈이 가속화된 탓이다. AGC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의 45%가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ABC는 26년 한 해에만 건설업 전체에서 34만9천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 인력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다.

주택 개발 프로그램 예산안 삭감

미국 주택 시장은 2026년 초 모기지 금리가 잠시 6%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는 듯했지만, 봄 성수기 모기지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10% 이상 급감했다. 403만호의 공급 부족이 여전한 상태에서 높은 금리와 관세 비용 전가가 맞물리며 실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주요 홈빌더들의 주가는 크게 부진하고 있는데, 섹터 전체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지수 대비 9.3%p 언더퍼폼 (-13.2% vs -3.9%)했다. 더불어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HUD 예산을 $10.7B(약 13%)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주택 개발 프로그램 6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D의 예산과 인력이 줄면서 FHA 보증 대출, 임대 보조 등 첫 주택 구입자와 저소득 임차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홈빌더의 분양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6	186,200	204,000	9.5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4/6	145,500	154,200	5.98%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6	93,400	103,000	10.28%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4/6	507,000	487,000	-3.94%	• 2026년 상반기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유효 • 하반기 국산 비만치료제 출시와 연간 1건 이상의 기술이전 가이던스를 제시
엔씨소프트 (036570.KS)	4/6	211,500	234,000	10.64%	• JustPlay 인수로 글로벌 캐주얼 게임 라인업과 AdTech 역량을 내재화 • 하반기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에 대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
CJ제일제당 (097950.KS)	4/6	226,000	232,500	2.88%	• 하반기 유가·곡물가 상승과 중국 돈가 회복에 따른 라이신·핵산 수요 개선 기대 • 4Q25 실적 발표에서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피력
리노공업 (058470.KQ)	4/6	110,400	113,100	2.45%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더블유씨피 (393890.KQ)	4/6	14,420	16,210	12.41%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2%	-4.42%p	+57.82%	+22.0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알테오젠 (196170.KQ)	4/6	365,500	370,000	1.23%	• 4월 J-code 발효에 따른 키트루다 Qlex 처방 확대, 추가 본계약 가능성 • Dapirolizumab pegol 및 Felzartamab 추정하나, LEQEMBI로도 확대 가능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04,000	22.0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21,000	6.72%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0,000	8.93%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4,200	8.67%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7,000	10.38%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9,900	21.37%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3,900	3.36%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47,000	8.89%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41,000	16.18%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4/1	128,000	130,400	1.88%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60%	-6.55%p	+31.01%	-4.7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8,400	-3.9%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280	-5.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5,460	0.4%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290	56.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6.04	0.3%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60.16	31.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9.90	17.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89	10.5%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3,390.95B, 이전치 $3,427.8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1.4% 이전치 0.0%)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23,193m/$23,364m,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3,932.7b,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